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aking e-Learning Courses

Mi-Ok Lee*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Wonju,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n e-learning courses,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the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9 third-year e-learning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W city.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R statistical package version 4.4.2.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elf-directed learning was 4.04 ± 5.00 on a 5-point scale and self-leadership was 4.00 ± 0.47 .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self-directed learning was a factor affecting self-leadership ($\beta=0.79$,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applying e-learning courses in nursing.

▶ **Key words:** e-Learning, Nursing students, Online, Self-directed learning, Self-Leadership

[요 약]

이 연구는 e-learning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의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W시 1개 간호대학에서 3학년의 e-learning 과목을 수강하는 179명이다. 연구 자료는 R 통계 패키지 버전 4.4.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은 5점 척도에서 4.04 ± 5.00 이었고 셀프리더십은 4.00 ± 0.47 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주도 학습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beta=0.79$, $p<.001$). 이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에서 e-learning 교과목 적용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주제어:** 이러닝, 간호대학생,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셀프리더십

I. Introduction

e-learning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이며, 전통적인 교육과 비교할 때 학습공간과 학습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학습자 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e-learning은 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학습의 장이 가정과 학교 등으로 확장되지만 대면 강의가 아니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강화가 요구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 결정, 학습 목표 설정, 학습 프로그램 선정, 학습 결과 평가 등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 형태로[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진단하여 학습 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여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어서[3],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다[4].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5-6],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 수행 능력과 상관성이 있고[7-8], 메타인지와 상관성이 있어서[9], 장기적으로 신규 간호사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적응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실습 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성과 학업 효능감,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교육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감성지수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11]. 자기주도학습에는 감성지능의 '감성 활용', 회복탄력성의 하부 요인 '통제성'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부 요인 '객관성'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예비 간호사로 요구되는 임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비평적 사고, 학습 효능감, 술기 수행 자신감, 통제력 및 객관성, 감성 등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관련되어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율적 리더십 또는 자기 리더십이라 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하며, 즉 타인이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로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13]. 셀프리더십은 자기 영향(self-influence)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을 모두 일컫는다. 여기서 셀프(self)의 의미는 '자아'

의 개념으로 이는 인간 내부의 기본적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타율 지향적인 리더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14].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건강개념의 변화와 대상자의 건강 의식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 간호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었다[15]. 이는 간호대학생이 예비 간호사로서 빠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간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16],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17]. 또한 e-learning과 대면 강의를 수강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들의 셀프리더십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각각 간호대학생의 대면, 비대면 학습에서 각각 학습몰입과 학습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learning 간호학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주도학습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 Method of Research

1. Study design

본 연구는 e-learning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의 특성과 변수 간 상관관계,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of the study

본 연구의 대상자는 W시 간호대학 3학년 교과목을 e-learning으로 수강하며,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표본 크기는 G power 3.1.9.7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산출

한 결과 129명이었다. 결손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179개 자료를 번호로 코딩하여 익명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Self-Directed Learning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대만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19], 한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20]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4개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 7문항,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 9문항, 학습 상호 작용(learning interaction) 2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 2문항으로 되어 있다. 도구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점은 20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의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가 .92 [19], 이를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에서 .92 [20],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하위 범주별 도구 신뢰도를 살펴보면, 수정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학습 동기 .80, 학습 과정 .86, 학습 상호 작용은 .70, 의사소통 .81이었고 [20], 본 연구의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범주별 신뢰도는 학습 동기 .81, 학습 과정 .89, 학습 상호 작용 .40, 의사소통 .68이었다.

3.2 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 일체를 말한다[21].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Manz가 개발한 것일[22], 수정 보완한 셀프리더십 18문항 도구[23]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6개 하위 범주는 '자기 기대(self-expectation)' 3문항이며, 자

기 기대는 스스로 도전하고 극복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자신 능력에 대한 확신이며, '리허설(rehearsal)' 3문항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태도이며, '목표 설정(goal setting)' 3문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자신이 실행하도록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행동이다. '자기 보상(self-reward)' 3문항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보상이며, '자기비판(self-criticizing)' 3문항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 징계이고, '건설적 사고(constructive thinking)' 3문항은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를 뜻한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말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23], Yang과 Moon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1$ [1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하위변수별로 본 도구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2.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R-통계 패키지 Version 4.4.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통계 패키지는 더미 처리와 사후검정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처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기술적 분석으로 구했고 성별에 따른, 재수강 여부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각각 t-test로 분석하였고, 연령별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3학년 교과목 수강생이 대상자 이라서 연령층이 좁은 특성 때문에 4세 간격으로 집단을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s

| Variables | Subcategories | The Relevant Item | Number of Items | Cronbach's α |
|------------------------|-----------------------|-------------------------|-----------------|---------------------|
| Self-Directed Learning | Learning Motivation | 1,2,3,4,5,6,13 | 7 | 0.81 |
| | Learning Process | 7,8,9,10,11,12,14,15,16 | 9 | 0.89 |
| | Learning Interaction | 17,18 | 2 | 0.40 |
| | Communication | 19,20 | 2 | 0.68 |
| | Total | 1-20 | 20 | 0.91 |
| Self-Leadership | Self-Expectation | 1,2,3 | 3 | 0.85 |
| | Rehearsal | 4,5,6 | 3 | 0.73 |
| | Goal-Setting | 7,8,9 | 3 | 0.75 |
| | Self-Reward | 10,11,12 | 3 | 0.72 |
| | Self-Criticism | 13,14,15 | 3 | 0.82 |
| | Constructive Thinking | 16,17,18 | 3 | 0.76 |
| | Total | 1-18 | 18 | 0.84 |

Table 2.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 Variables | Categories | n(%) | Self-Directed Learning | | Self-Leadership | |
|-------------------|------------|------------|------------------------|--------------|-----------------|--------------|
| | | | Mean±SD | t or F(p) | Mean±SD | t or F(p) |
| Gender | Female | 139(77.65) | 4.03±0.49 | 0.640(0.068) | 3.98±0.47 | 1.070(0.807) |
| | Male | 40(22.35) | 4.12±0.61 | | 4.09±0.46 | |
| Age(yr) | 20-24 | 154(86.03) | 4.05±0.49 | 0.694(0.489) | 3.99±0.47 | 0.065(0.948) |
| | 25-29 | 12(6.70) | 4.09±0.74 | | 4.17±0.62 | |
| | 30-34 | 9(5.03) | 4.10±0.68 | | 4.00±0.35 | |
| | ≥ 35 | 4(2.23) | 3.68±0.45 | | 3.82±0.39 | |
| Retake the Course | No | 177(98.88) | 4.00±0.47 | 0.564(0.369) | 4.05±0.52 | 1.779(0.908) |
| | Yes | 2(1.12) | 4.03±0.35 | | 3.81±0.69 | |
| Total | | | 4.04±0.52 | | 4.00±0.47 | |

나뉘었다.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및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명목변수를 더미 처리, 단계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 참여자는 국제간호를 e-learning으로 수강하는 간호대학생 3학년 중 연구에 참여한 179명이었다. 여학생이 139명(77.65%)이었고 남학생은 40명(22.35%)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24세가 154명(86.0%), 25-29세 12명(6.7%), 30-34세 9명(5.0%), 35세 이상은 4명(2.2%)이었다.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여학생이 평균 4.03±0.49, 남학생은 평균 4.12±0.61로 나타나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평균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t=0.640(p=0.068)이었다. 연령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평균은 20-24 세 4.05±0.49, 25-29 세 4.09±0.74,

30-34 세 4.10±0.68, 35세 이상은 3.68±0.45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성별, 연령, 재수강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자기주도학습의 평균은 4.04±0.50이었고, 최소- 최대 범위는 2.70-5.00이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범주 중에서 학습 동기는 평균은 4.10±0.56, 범위가 2.57-5.00이었고, 학습 과정은 평균은 3.98±0.64, 최소-최대 범위가 2.33~5.00, 학습 상호 작용의 평균은 4.23±0.66, 최소-최대 범위는 2.50-5.00이었고, 의사소통의 평균은 3.88±0.79, 최소-최대 범위는 2.00-5.00이었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4.00±0.47이었고, 최소-최대 범위는 2.80-5.00이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자기 기대는 평균은 3.86±0.83, 범위가 1.33-5.00이었고, 자기 보상은 평균은 4.50±0.57, 범위가 2.33-5.00이고, 리허설의 평균은 4.18±0.72, 범위가 1.33-5.00, 목표 설정은 평균은 3.96±0.75, 범위가 1.33-5.00, 자기비판은 평균이 3.90±0.86, 범위가 1.67~5.00, 건설적 사고는 평균은 3.63±0.81, 범위가 1.67-5.00이었다(Table 3).

Table 3.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n=179)

| Variables | Subcategories | Number of Items | Min-Max | Mean±SD |
|------------------------|-----------------------|-----------------|-----------|-----------|
| Self Directed Learning | Learning motivation | 7 | 2.57-5.00 | 4.10±0.56 |
| | Learning process | 8 | 2.33-5.00 | 3.98±0.64 |
| | Learning interaction | 2 | 2.50-5.00 | 4.23±0.66 |
| | Communication | 2 | 2.00-5.00 | 3.88±0.79 |
| | Total | 20 | 2.70-5.00 | 4.04±0.52 |
| Self-Leadership | Self-expectation | 3 | 1.33-5.00 | 3.86±0.83 |
| | Rehearsal | 3 | 1.33-5.00 | 4.18±0.72 |
| | Goal-setting | 3 | 1.33-5.00 | 3.96±0.75 |
| | Self-reward | 3 | 2.33-5.00 | 4.50±0.57 |
| | Self-criticism | 3 | 1.67-5.00 | 3.90±0.86 |
| | Constructive thinking | 3 | 1.67-5.00 | 3.63±0.81 |
| Total | | 18 | 2.83-5.00 | 4.00±0.47 |

3. Correlations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자기 주도 학습의 학습 동기와 학습 과정의 $r=.67, p=.000$, 학습 동기와 학습 상호 작용은 $r=.45, p=.000$,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은 $r=.48, p=.000$ 이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학습 동기와 셀프리더십의 자기 기대의 $r=.60, p=.000$, 학습 동기와 리허설의 $r=.48, p=.000$, 목표 설정과 $r=.64, p=.000$, 학습 동기와 자기 보상은 $r=.41, p=.000$, 학습 동기와 건설적 사고는 $r=.54, p=.000$ 이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학습 과정과 학습 상호 작용은 $r=.39, p=.000$, 의사소통과 $r=.42, p=.000$, 학습 과정과 자기 기대는 $r=.52, p=.000$, 학습 과정과 리허설은 $r=.63, p=.000$, 학습 과정과 목표 설정은 $r=.68, p=.000$, 학습 과정과 자기 보상 $r=.40, p=.000$, 건설적 사고는 $r=.44, p=.000$ 이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범주인 학습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r=.45, p=.000$, 학습 상호작용과 자기 기대는 $r=.23, p=.002$, 학습 상호작용과 리허설의 상관관계는 $r=.34, p=.000$, 학습 상호작용과 목표 설정과의 상관관계는 $r=.33, p=.000$, 학습 상호작용과 자기 보상과의 상관관계는 $r=.25, p=.001$, 학습 상호작용과 건설적 사고와의 상관관계는 $r=.29, p=.000$

이어서 각각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의 의사소통은 셀프리더십의 자기 기대와 상관관계가 $r=.52, p=.000$, 리허설과 상관관계가 $r=.26, p=.001$, 목표 설정과 상관관계가 $r=.643, p=.000$, 자기 보상과 상관관계가 $r=.22, p=.003$, 건설적 사고와 상관관계가 $r=.56, p=.000$ 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자기 기대는 셀프리더십의 리허설과 $r=.28, p=.000$, 목표 설정과의 상관관계가 $r=.61, p=.000$, 자기 보상과 상관관계가 $r=.32, p=.000$, 건설적 사고와 상관관계가 $r=.56, p=.000$ 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범주인 리허설은 목표 설정과 $r=.45, p=.000$, 자기 보상과 $r=.36, p=.000$, 건설적 사고와 $r=.33, p=.000$ 으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의 목표 설정은 자기 보상과 $r=.50, p=.000$, 건설적 사고와 $r=.44, p=.000$,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정의 상관관계에서 가설2는 지지되었다.

4.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참여자의 자기 주도 학습은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0.79$,

Table 4. Correlations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Leadership

| Variables | Subcategories | Self-Directed Learning | | | | Self-Leadership | | | | | |
|------------------------|-----------------------|------------------------|--------------|--------------|---------------|-----------------|---------------|--------------|--------------|---------------|-----|
| | | LM | LP | LI | CO | SE | R | GS | SR | SC | CT |
| | | r/p | r/p | r/p | r/p | r/p | r/p | r/p | r/p | r/p | r/p |
| Self-Directed Learning | Learning Motivation | 1 | | | | | | | | | |
| | Learning Process | 0.67 .000 | 1 | | | | | | | | |
| | Learning Interaction | 0.45 .000 | 0.39 .000 | 1 | | | | | | | |
| | Communication | 0.48 .000 | 0.42 .000 | 0.45 .000 | 1 | | | | | | |
| Self-Leadership | Self-Expectation | 0.60 .000 | 0.52 .000 | 0.23 .002 | 0.52 .000 | 1 | | | | | |
| | Rehearsal | 0.48 .000 | 0.63 .000 | 0.34 .000 | 0.26 .001 | 0.28 .000 | 1 | | | | |
| | Goal-Setting | 0.64 .000 | 0.68 .000 | 0.33 .000 | 0.43 .000 | 0.61 .000 | 0.45 .000 | 1 | | | |
| | Self-Reward | 0.41 .000 | 0.40 .000 | 0.25 .001 | 0.22 .003 | 0.32 .000 | 0.36 .000 | 0.50 .000 | 1 | | |
| | Self-Criticism | -0.01 .891 | 0.07 .369 | 0.05 .529 | -0.09 .258 | -0.15 .044 | 0.11 .0142 | 0.08 .279 | 0.08 .295 | 1 | |
| | Constructive Thinking | 0.54 .000 | 0.44 .000 | 0.29 .000 | 0.56 .000 | 0.55 .000 | 0.33 .000 | 0.44 .000 | 0.17 .023 | -0.05 .484 | 1 |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Constant) | 1.14 | 0.17 | 0.00 | 6.803 | <0.001 |
| Self-Directed Learning | 0.71 | 0.04 | 0.79 | 17.132 | <0.001 |
| Age | 0.00 | 0.01 | -0.02 | -0.255 | 0.799 |
| Gender | -0.11 | 0.08 | -0.09 | -1.254 | 0.212 |

$R^2= 0.62$, Adjusted $R^2=0.62$, $F=293.50$, $p < 0.001$, $AIC = 67.47$

$p < .001$). 따라서 가설 3은 지지 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e-learning 교과를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은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Discussion

본 연구는 3학년 온라인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셀프리더십을 분석하여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자기주도학습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04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아동간호학 온라인 강의에서 자기주도학습이 3.34점[24], 간호대학생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연구에서 3.34[25], 간호대학생의 진로 적용 연구에서 3.58[26], Park과 Shin[27]의 3.32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 35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 학습 기회가 없었거나 적었기 때문으로 본다. 재수강생이나 35세 이상 연령군은 셀프리더십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첨단정보학적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현재 대학생 보다 e-learning 수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되어 추후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수강 방법에 대한 추가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범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은 학습 상호 작용의 4.23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것은 의사소통으로 3.88이었다. 이는 e-learning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원격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 작용을 구현하기에[1] 웹 기반의 도구를 활용한 교수와 학습자 간의 온라인 학습센터(LMS)의 집단 공지, 카카오휴크를 이용한 개인 상호 작용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4.00이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 [16], [27-28] 보다 높으며, 공통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인식하는 점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범주 중에서 자기-보상이 4.18로 가장 높았고 하위 범주 도구가 차이가 있었던 이전 연구 결과[16], [18], [28-30]과 같았다. 자기-보상이 대상자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등 자신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31],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보상과 추상적인 무형의 보상임을[23] 고려할 때, e-learning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선물 등을 주는 자기 보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

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개인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전략과 인지 전략을 포함한다[32]는 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e-learning에서 자기-보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e-learning 간호학 교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나아가 e-learning 간호학 교과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V. Conclusion

e-learning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이 중간값 보다 높고, 정의 상관을 가지며,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e-learning 교과에서 자기주도학습과 셀프리더십을 다룬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장차 e-learning 간호학 교과 운영 전략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1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a research grant from Kyungdong University.

REFERENCES

- [1]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_%ED%95%99%EC%8A%B5
- [2] Naver dictionary,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C%9E%90%EA%B8%B0%EC%A3%BC%EB%8F%84%ED%95%99%EC%8A%B5&from=tsearch>
- [3] Brookfield SD. "Understanding and Facilitating Adult Learning",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Vol. 16, No.2, pp. 99-105, 1988.
- [4] Sjee., jkkim and wjkim, "The Effects of Self-Induc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4, pp. 1251-1265, 2020. DOI : 10.22251/jlcci.2020.20.14.1251
- [5] Kelee and ekbyu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on Self-leadership of

-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6, pp. 409-417, 2023.
- [6] Gpark,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sent Research Interchange*, Vol. 9, No. 8, pp. 295-307, August 31, 2023.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8.23>
- [7] Ms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December, 2011.
- [8] Hsryu and jykim,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1, pp. 42-51, 2022. DOI : 10.12925/jkocs.2022.39.1.42
- [9] Myjho and mocha,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13-522, November,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13>
- [10] Jecha and hjkang,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epar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pp. 433-446, 2020.
- [11] Hjkim, ys and jbae, “The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non-face-to-face clas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2, pp. 200-208, 2021. DOI : 10.5762/KAIS.2021.22.12.200.
- [12] Mjle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elated to Online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7, pp. 441-449, 2021. DOI : 10.5762/KAIS.2021.22.12.200.
- [13]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1072&categoryId=51072>
- [14] Manz, C. C. and Sims, H. P.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9.
- [15] Hjwon, shcho,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3, pp. 382-393, June, 2013. <https://doi.org/10.1111/jkana.2013.19.3.382>
- [16] Nyyang and sy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June, 2011.
- [17] Yhlee, kopark, “The Effect of Learning-flow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455-462, 2022.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455>
- [18] Smlim and yryeom,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1, pp. 107-116, 202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1.107>.
- [19] Cheng SF, Kuo CL, Lin KC and Lee-Hsieh J. “Development and Preliminary Testing of a Self-Rating Instrument to Measur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7, No. 9, pp. 1152-1158, September, 2010.
- [20] Emkwak, jylLee and Jwoo,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elf-directed Learning Instru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26 No. 1, pp. 12-22, February, 2019.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9.26.1.12>.
- [21] Manz, C. C. and Sims, H. P,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9, No. 4, pp. 18-35. Spring, 1991.
- [22] Manz, C. 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1983.
- [23] Hs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3.
- [24] Ejkim and hrkim, “The Effects of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9, pp. 333-340, 2021. DOI : 10.5762/KAIS.2021.22.9.333.
- [25] Sokim and mssh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2. No. 3, pp. 424-437, December, 2018. DOI : 10.5932/JKPHN.2018.32.3.424
- [26] Hspark,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on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6, No. 4, pp. 420-428, November 30, 2021. DOI:10.21032/jhis.2021.46.4.420
- [27] Mmpark and jhshin, “The Effect of On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virus (COVID-19)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9, No. 1, pp. 77-86, 2021. <https://doi.org/10.22961/jhcls.2021.9.1.77>
- [28] Ysko and smhan, “Influence of Online lecture quality,

-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4, pp. 327-336, 2021.
- [29] Shkim and sy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DOI : 10.5762/KAIS.2014.15.3.1557
- [30] Molee, mylee and sy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417-425. August,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417>
- [31] Naver dictionary, https://open-pro.dict.naver.com/_ivp/#/pfentry/76d9489126364709bad0307c3349f598/5939c5a69d8f4ca38ba12618900a8523)
- [32] Bemin, swlim, hkkim and hsrhee, “The Influence Factors and Effects of Self-Leadership: Focusing on Members of the Hospital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 23, No. 1, pp. 66-77. 2013. DOI: <http://dx.doi.org/10.4332/KJHPA.2013.23.1.066>
- [33] Sgkim, jyylim,, hskim, and Kjkim,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Blende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30, No. 3, pp. 232-241, August, 2024. DOI:10.5977/jkasne.2024.30.3.232

Authors



Mi-Ok Lee received the B.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6, 2013,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Woosuk University,

Jeonju, Korea in 2008.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yundong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nursing informatics and psychiatric nursing.